

첨부 - 동향

[한국블록체인협회 - 2022년 3월]

「디지털자산」 동향 보고서

2022. 4. 12

목 차

1. 이달의 포커스	1
2. 정책동향	3
3. 시장동향	10

본 보고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참고용' 자료임을 밝힙니다.

1 이달의 포커스 : 트래블룰 시행

□ '2022년 03월 25일' 트래블룰 본격 시행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작됐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 출처 : [그것이 궁금]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무엇? 가상자산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화 (데일리팝 정단비 3/29),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8874>

□ 어수선한 분위기 속 트래블룰 시행 준비

트래블룰 시행 초기에는 솔루션별, 거래소별 입출금 지원 범위가 달라 이용자들의 혼선이 예상되었음.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가 해외보다 빠르게 트래블룰이 시행되는데다 솔루션 간 협업이 안돼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에 이달 시행에 앞서 외부 출금이 필요했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또는 디파이, NFT를 쓰기 위해 개인지갑을 써왔던 이용자들은 거래소들의 트래블룰 관련 추가 공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 출처 : 트래블룰 예고 나선 가상자산 거래소들... 뭐가 달라지나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3/7),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402>

□ 지연된 솔루션 간 연동, 불편은 이용자에게

국내 거래소는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트래블룰 솔루션인 코드(빗썸·코인원·코빗) 또는 베리파이바스프(업비트)를 이용함. 현재 같은 솔루션을 쓰는 업체끼리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하지만 솔루션이 다르면 당분간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됨.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은 “트래블룰 이행 시점에 맞춰 준비 중이던 코드와 베리파이바스프 연동은 지연된 상태이며 완벽한 연동은 4월24일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음.

* 출처 : 코인실명제 ‘트래블룰’ 시행, 다른 솔루션 사이 송금은 4월 말부터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3/24),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547

□ 韓 코인시장 약세... 한국시장 고립 우려

‘트래블룰’ 시행에 따른 여파가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트래블룰 시행일 하루 전부터 ‘역 김치 프리미엄(역프)’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은 “트래블룰 시행으로 특정 거래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면 재정거래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며 “개인의 재정거래가 제한받게 되면 국내와 해외 거래소 간의 가격차이(김프, 역프)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음.

* 출처 : ‘트래블룰’ 장벽에 코인시장 ‘역프’ 심화 (디지털타임스 이영석 3/3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3002109963074003&ref=naver

□ 일부 거래소 ‘독주 체제’ 더욱 심해져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점유율이 트래블룰 시행 이후 한층 더 강화됐음. 트래블룰 시행 일주일 뒤인 3월31일 기준 거래액 점유율을 보면 업비트가 85.9%(10조9000억원)로, 타 거래소와의 거래액 격차를 벌리면서 트래블룰 시행에 따른 반사효과를 누렸음. 반

면 빗썸은 11.9%로 거래액 점유율이 대폭 내렸고, 코인원 역시 3%로 현상유지에 만족해야했음.

* 출처 : 업비트, 트레이블링 시행 후 '독주 체제' 더 단단해졌다 (뉴스워커 고수현 4/5),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40>

2 정책동향

국 내

□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 도입, 원화거래소 늘리겠다.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심사 프로세스를 개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 라이선스를 3~4군 데 더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음.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를 늘리겠다고 밝힌 것.

아울러 윤 의원은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문제” 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인 과세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고 지적했음. 윤 의원은 “우선 가상자산법부터 마련하고 관련 법제가 정리가 돼야 한다” 며 “시장정비가 안 되면 과세 시점을 더 늦춰야 한다” 고 말했음.

* 출처 : “윤석열정부, 코인전문은행 만들 것…세금 더 늦춰야” (이데일리 최훈길 3/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96086632261024&mediaCodeNo=257&OutLnkChk=Y>

□ 윤 당선인이 제시한 4가지 약속 지켜지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약속은 크게 4가지임. ▲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 발행(IEO) 도입 및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대체불가능한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암호화폐 시장 육성 등임.**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됨. 해킹·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도 확대되며, 암호화폐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도 추진될 예정임.

윤 당선인은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디지털자산 소득’ 등으로 신설해 과세할 방침이며,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암호화폐공개(ICO) 허용도 공약했음. 거래소 발행(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임.

* 출처 : “음지에서 양지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제도권 편입 기대 (머니s 강수지 3/24)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31816358031013>

□ 부산시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논의 재시동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시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논의가 다시 시작됐음. 부산광역시는 시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있음.

아직 어떤 유형의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음. 부산시 금융블록체인과 관계자는 “가상자산 포함 STO(증권형토큰), NFT(대체불가토큰) 등 포괄적으로 보고 있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부산시, 디지털자산 거래소 문열까...“협의체 꾸리고 논의 중”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3/30)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15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3.0산업 육성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웹 3.0(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산업 육성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발전방향 연구를 시작함. 최근 신기술(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발전 등으로 인해 웹 3.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웹

3.0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산업적 측면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구할 웹 3.0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웹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시장 파악, 주요 현안 분석 및 정부 정책 방향 제시 ▲웹 3.0 관련 국내 선도 기술·서비스 발굴 및 정책적 지원 수요 검토 ▲웹 3.0 관련 시장현황·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국내 웹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검토 등임.

* 출처 : 과기정통부, 웹 3.0 연구 착수...연구반 운영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3/25)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620>

국 외

1) 미국

□ 미국, 러시아 가상자산 활용 못하게 옥죄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옥죄고 있음. 미국인들의 지원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가 나왔고,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미국의 새로운 규제는 가상자산을 통한 대러 지원을 막고 있음. “디지털 통화나 자산(digital currencies or assets), 물리적 자산의 사용을 포함, 미국에 있거나 앞으로 미국에 있을,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이익은 차단되며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또 러시아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 재무부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FTX 등에 제재 대상자를 알리고 이들의 지갑 주소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음.

* 출처 : 미국, 러시아 가상자산 활용 못하게 옥죄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윤경 3/1),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15>

□ 블룸버그 “美, 증권위 NFT 시장 규제 나서”

블룸버그가 지난 3월 3일(현지시간)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시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의 새로운 규제 표적이 됐다고 보도했음. 해당 매체는 SEC가 NFT 시장 거래소와 제작자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규정하며 잠재적인 위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조치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짚었음.

SEC가 시행 중인 새로운 규제 조치는 증권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인 것으로 밝혀졌음. 블룸버그는 해당 기관이 NFT 시장 내 조사하는 사항은 관련 상품이 전통적인 증권처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이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 출처 : 블룸버그, “美 증권위 NFT 시장 규제 나서” (경향게임스 유동길 3/4),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12>

□ 주립은행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허용 법안 통과

버지니아 주 상원은 은행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법안은 “은행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26개의 적절한 프로토콜이 있는 한 은행은 고객에게 가상 통화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원에서 총 39대 0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가 서명하기를 기다리고 있음.

* 출처 : 美 버지니아 상원, 주립은행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 허용 법안 통과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3/8),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203080811541218c4c55f9b3d_1/article.html?md=20220308083916_S

□ 미 상원의원 후보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공약

15일(현지시간) 핀볼드에 따르면, 11월 치러지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워싱턴주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브라이언 솔스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

그는 출마 선언에서, “비트코인을 미국의 법정 통화로 만드는 것은 상원에서 나의 주된 목표가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그레이트 리셋’ (Great Reset)” 이라고 밝혔음. 핀볼드에 따르면, 솔스틴이 상원에 입성해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에 성공한다면 비트코인은 연방준비제도가 발행하는 달러와 같은 지위를 인정 받게 됨.

* 출처 : 미 상원의원 후보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 공약 (블록미디어 박재형 3/16),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17903>

□ 美 SEC,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가상 자산 부채로 회계 처리 지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장거래소 및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기타 회사는 해당 자산을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공개해야 함.

이 지침은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같은 거래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들 기업에 무담보 대출을 하고 있다는 게리 겐슬러 SEC 회장의 경고를 반영한 것으로, SEC 관계자는 이는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회계 방법에 일관성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출처 : 美 SEC,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가상 자산 부채로 회계 처리 지시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4/1),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204011644503791c4c55f9b3d_1/article.html?md=20220401165710_S

2) 인도

□ '가상자산에 30%세금 부과' 법안 통과

25일(현지시간) 인도 하원 로크 사바(Lok Sabha)는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 타라만(Nirmala Sitharaman)이 발의한 가상자산 세금 체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음. 해당 안에 따르면, 인도 납세자는 가상자산 및 NFT 거래 시 30%의 자본소득세(the capital gains tax)를 비롯해 매 거래마다 1%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TDS)를 납부해야 함.

법안 통과에 대해 현지 가상자산 업계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들은 거래 손실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점, 매 가상자산 거래마다 1%를 원천징수 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음.

반면 인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정비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특정 자산에 대한 과세는 규제기관이 해당 자산을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가상자산 제도화로 해석기 때문임.

* 출처 : 인도 의회, '가상자산에 30% 세금 부과' 법안 통과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세진 3/26),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56>

3) 태국

□ '가상자산에 30%세금 부과' 법안 통과

27일 태국 영어 일간 방콕포스트(Bangkok Pos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물품과 서비스 결제를 4월 1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음.

SEC는 가상화폐 결제가 태국 금융 시스템과 경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거래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유럽, 영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의 규정과 유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였음.

* 출처 : 태국, 금융 시스템 위협 이유로 4월부터 가상화폐 결제 금지 (내외경제TV 조성영 3/27),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800>

4) 영국

□ 영국, '가상자산 허브'로... 스테이블 코인 제도 정비한다

영국이 가상자산 허브 구축을 천명했음. 이를 위해 **법정화폐를 이용한 결제수단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을 추진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영국 정부는 영국을 가상자산 기술 및 투자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편입하기 위한 규제안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와 함께 가상자산 허브를 구축하는 일환에서 금융시장 인프라(FMI) 샌드박스 제도 도입, 업계와의 소통 강화, 세금 제도 정비,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도 추진함.

* 출처 : 영국, '가상자산 허브'로...스테이블 코인 제도 정비한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세진 4/5),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47>

5) EU

□ EU의회, 규제받지 않는 암호화폐 기업 활동 금지 추진

유럽연합(EU) 의회가 **규제받지 않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EU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음. 31일 표결에 부칠 돈세탁방지법 초안에 첨부된 새 조항은 EU 내 금융기관 및 신용 제공 기관들, 그리고 규제받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non-compliant)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모든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출처 : EU 의회, 규제받지 않는 암호화폐 기업 활동 금지 추진 (블록미디어 장도선 3/31),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20537>

3 시장동향

□ 국 내

o 네오위즈

1일 가상자산 거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EXC 글로벌’에 첫 거래를 시작한 네오위즈 네오핀토큰(NPT)의 시가 총액이 30조원 규모로 집계됐음. 개당 가격은 3만원대로, 총 발행량은 10억개에 이룸. 상장 직후 무려 10배 가량 가격이 뛰어오른 것.

네오위즈는 업계에서 가장 앞선 지난 2017년부터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시작, 국내외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의 노드 운영사업에 참여해 왔음.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회사 그라운드X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블록 생성 검증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음. 최근에는 카카오게임즈의 ‘게임코인’ 보라 생태계에도 합류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가상자산 지갑 애플리케이션(앱) 엔블록스(nBlocks)를 통해 클레이 예치이자 서비스를 운영 중임.

* 출처 : 테크M 이슈] NPT 코인 시총만 30조? 게임명가 ‘네오위즈’의 부활 (테크M 이수호 3/1),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94680>

o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람다256과 금융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협업 과제 발굴 및 파일럿 과제 수행 ▲금융 업무에 특화된 블록체인 플랫폼과 신금융서비스 공동 개발 ▲블록체인 기술 공동연구 및 협력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함. 양사는 금융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만들고 이에 필요한 플랫폼과 생태계를 함께

조성할 계획임.

- * 출처 : 국민은행-람다256, 신금융 서비스 개발 위해 '맞손' (코인데스크 코리아 함지현 3/2),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53>

0 넷마블

7일 넷마블은 이달 중 오픈 예정인 블록체인 플랫폼 MBX의 백서를 발간했음. 해당 백서를 통해 MBX가 추구하는 블록체인 서비스와 향후 로드맵, 구조적 특성 및 기술적 강점 등을 소개했으며, 또한 기축통화인 MBX 토큰의 발행량과 분배 계획 등을 제시했음

MBX 백서가 발간되며 MBX 토큰이 상장될 가상자산 거래소 및 넷마블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넷마블은 지난달 컨퍼런스 콜을 통해 먼저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통해 MBX 토큰을 상장한 뒤, 점차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현재 넷마블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관계이며, 뛰어난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및 지원을 제공받아 사업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 출처 : 넷마블, 블록체인 'MBX' 백서 발행 ... "토큰 총 10억개 발행" (더게임스데일리 이 상민 3/7),
<http://www.tg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36>

0 티몬

타임커머스를 앞세워 국내 1세대 이커머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티몬이 블록체인을 통해 또 한번의 유통 혁신을 꿈꾸며 국내 대형 이커머스 기업 중에선 최초로 보상형 가상자산을 도입, 이커머스 입점사와 고객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띄운다는 전략임.

티몬이 꿈꾸는 블록체인 생태계는 쉽게 말해 플레이 투 언(P2E)의 이커머스 버전임. 티몬 브랜드 입점사들의 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코인, NFT 등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접목하는 것. 예컨대 특정 브랜드의 리뷰를 쓴 이용자에게만 NFT를 제공하거나, 브랜드 입점사가 티몬에 내재된 커머스 빅데이터를 코인을 주고 활용할 수 있음. 일종의 전문가 탈중앙조직(DAO)을 도입, 티몬의 커머스를 인프라를 블록체인에 올려 상호 연결하겠다는

것임.

- * 출처 : 블록체인 칼 뽑은 티몬...'티몬 코인' 발행한다 (테크M 이수호 3/8),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94951>

o 세종텔레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새로운 법제화와 투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이달 중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STO’ 서비스가 출시됨.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고가의 실물자산이나 주식, 매출채권 등의 비유동자산을 가상자산화한 것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투자 플랫폼 ‘비브릭(BBrick)’은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인 부산 지역 빌딩 운영을 통한 수익을 토큰화한 서비스임. 투자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건물의 증권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쪼개기 투자임.

비브릭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2년간 부산 안에서만 사업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박 부사장은 “부동산 STO 관련 법률 정비가 아직 시장이 무르익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며 “실증특례만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부산 지역에서만 사업을 한정해야 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음.

- * 출처 : 커피값으로 빌딩 투자?...부동산 연계 가상자산 출시 임박, 보완점은 (아주경제 장한지 3/14),
<https://www.ajunews.com/view/20220313141500242>

o 카카오뱅크

“(코인이) 플랫폼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 삶에 들어온다면 반드시 빠른 속도로 बैं킹(은행)과 연결 시켜주는 역할을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인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가상자산(코인) 분야로 진출할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윤 대표는 “현재는 라이선스(은행업 인가) 안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코인시장 진출에 선을 그으면서도, 코인 시장

성장세에 따라 향후에 진출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음.

- * 출처 : 가상자산시장 판 커지나...카뱅 “코인 성장하면 बैं킹과 연결” (이데일리 최훈길 3/2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83286632264632&mediaCodeNo=257&OutLnkChk=Y>

o 크로스앵글

가상자산(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Xangle)은 제3자 감사기구로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쿠코인(KuCoin)과 프로젝트 발굴 및 프로젝트 상장 심사를 지원한다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음.

이 협약으로 쟁글의 운영사 크로스앵글은 쿠코인의 ▲상장심사 지원 ▲각 상장 자산의 공시 ▲블록체인 데이터 제공 등을 지원하게 됨. 이번 협약에 대해 김준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쿠코인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쟁글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함께 정확한 시장 변화 트렌드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 출처 :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 쿠코인과 제휴 체결 (한국정경신문 이상훈 3/22), <http://kpenews.com/View.aspx?No=2244024>

o SK스퀘어

SK스퀘어는 28일 본사 수펙스홀에서 제 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올해 안에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음. SK스퀘어는 관계사들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로 암호화폐 백서(White Paper)를 공개하고, 연내 암호화폐 발행과 이에 연계한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임.

현재 관계사들이 보유한 다양한 ICT 서비스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업 신뢰도, 블록체인 기술력을 토대로 암호화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스퀘어는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투자해 2대 주주에 오른 이후, SK ICT 관계사들과 코빗 시너지를 견인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경제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 출처 : SK스퀘어, 연내 암호화폐 발행...상반기 백서 공개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3/28),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930>

o 신한금융지주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캐피탈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신한캐피탈이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금융이 가상자산 분야를 새로운 먹거리로 상정해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시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빗에 대한 투자는 신사업 시도에 속도감을 더할 것으로 전망됨.

암호화폐의 경우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은행권의 직접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의 투자가 이뤄진다면 코빗에 대한 암호화폐 사용자들의 신뢰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가상자산 관심 신한금융,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투자 (글로벌이코노믹 이종은 3/24),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2032409132163757c99d70e7d_1/article.html?md=20220324091506_S

o LG전자

LG전자는 24일 연례 주주총회를 열어 블록체인과 암호화 자산 관련 사업을 자사 경영 목적에 새로 더할 예정임. ‘암호화 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추가함. 이를 기반으로 자사 스마트TV에 NFT 플랫폼 등을 탑재할 전망이다.

LG전자는 앞서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와 손잡고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키워 왔음. 지난달엔 카카오의 디지털지갑과 스마트TV를 연동해 디지털지갑에 담긴 NFT 형태 디지털예술 작품을 TV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드롭스갤러리’ (사진) 서비스를 시작했다.

* 출처 : 삼성 이어 LG까지...블록체인 시장 뛰어드는 대기업 (한국경제 선한결 3/23),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32357771>

o 카카오 픽코마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픽코마(전 카카오 재팬)가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SEBC)’ 를 인수했음. SEBC는 일본 금융청(FSA)에 정식 등록돼 있는 오사카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로 BTC(비트코인), ETH(이더리움), XRP(리플) 등 11개의 가상자산을 취급함.

이번 카카오 픽코마의 SEBC 인수는 카카오가 전사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비욘드 코리아’ 전략의 일환으로, 카카오 픽코마 관계자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시도하고자 일본 거래소 SEBC의 지분을 인수했다” 고 설명했다.

* 출처 : 카카오, 일본 코인 거래소 SEBC 인수..글로벌 사업 본격화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범수 4/4),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44>

□ 국 외

o 바이낸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업계도 이에 발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지난 3월 3일(현지시간) 해당 업체 내 러시아 기반의 은행 카드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바이낸스는 로이터를 통신해 러시아 은행 기반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재를 받은 개인의 접근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바이낸스의 이번 결정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및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출처 : 바이낸스, 거래소 내 러시아 기반 은행 카드 사용 금지 결정 (경향게임스 유동길 3/4),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02>

o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은행 중 처음으로 비상장 가상화폐 옵션거래에 나섰다고 CN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음.

골드만삭스는 이날 가상화폐 금융서비스 회사인 갤럭시디지털과 손잡고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된 파생상품인 ‘비트코인 차액결제옵션’ 거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차액결제옵션이란 기초자산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만기 때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형태의 거래를 가리킴.

대미언 밴더월트 갤럭시디지털 사장은 “이번 거래는 은행이 고객들을 대신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맞춤형 익스포저(특정 기업 또는 국가에 연관된 금액)를 제공하기 위해 내놓은 첫 조치”라며 비트코인 차액결제옵션이 “거래소 기반 상품이나 선물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시장에 연관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골드만삭스, 비상장 가상화폐 옵션거래 시작 (한국경제TV 이영호 3/22),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3220066&t=NN>

지난달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중 처음으로 가상화폐 장외거래(Over-The-Counter, OTC)에 참여한 골드만삭스가 거래 상품을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경제매체인 블룸버그가 4월 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조지 르윈 스미스(George Lewin-Smith)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팀 관계자는 “이더리움을 주제로 하는 고객들과의 대화가 점점 늘고 있다”라며 “이더리움은 현재 투자 가능한 자산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을 통해 실시할 차익 결제 옵션은 거래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실물은 주고받지 않고 만기 때 차액만 현금으로 정산하는 상품임.

* 출처 : 골드만삭스, 가상화폐 장외거래(OTC) 이더리움까지 확장 (경향게임스 유동길 4/6)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05>

0 코인베이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이 브라질 현지 신문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O estado de S.Paulo)를 인용, 보도한데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메르카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지주사 2TM 인수를 4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임.

지난 2021년 말 기준 메르카도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71억달러, 고객수는 320만명이며, 지난해 110만명이 추가됐다고 코인데스크US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시작돼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메르카도 비트코인 인수 협상은 바이낸스 홀딩스(Binance Holdings)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설명했다.

* 출처 : 엑스모빌, 잉여 천연가스로 암호화폐 캔다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3/25),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674>

0 바이비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지난 2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 ‘더 월드 거버먼트 서밋 2022(the World Government Summit 2022)’에서 UAE 경제부와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두바이에서 전 범위 가상자산 사업을 승인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바이비트는 또한 두바이에 글로벌 본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벤 조우(Ben Zhou) 바이비트 공동창업자 겸 대표는 본사 이전과 관련해 “바이비트의 두바이 이전을 통해 UAE의 가상자산 분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빠르게 성장하는 복잡한 가상자산 산업을 이해하는 데 바이비트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승인은 바이비트에 무척 특별한 기회로, UAE와 인근 지역이 글로벌 가상자산 기술 허브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바이비트, 본사 아랍에미리트로 옮긴다...가상자산 사업 승인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3/30),
<http://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870>

0 인텔

인텔은 암호화폐 채굴에 최적화된 칩인 블록스케일 ASIC 신제품을 5일 발표했다. 인텔이 개발한 응용 주문형 집적회로(ASIC)는 작업 증명(Proof-of-Work)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블록체인 해싱 기능을 제공한다.

발라지 카니기첼라(Balaji Kanigicherla) 인텔 부사장 및 가속 컴퓨팅 시스템 및 그래픽 그룹 커스텀 컴퓨팅 총괄은 “블록체인을 둘러싼 지속적인 모멘텀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의 길을 만들고, 분산형 컴퓨팅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인텔은 새로운 컴퓨팅 시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고객 운영 환경에

관계 없이 해싱 처리량과 에너지 효율 간 균형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인텔은 암호화, 해싱 기술 및 초저전압 회로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연구개발을 진행해왔으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컴퓨팅 역량을 확장할 수 있다” 고 말했다.

* 출처 : 인텔, 비트코인 채굴칩 시장 본격 공략...블록스케일ASIC 출시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4/5),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022>

o CVS약국, 섹섹버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일상 속으로 깊숙히 파고들고 있음. 미국 최대 약국체인 CVS가 메타버스·대체불가능한토큰(NFT)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인기버거 프랜차이즈 웨이크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고객 수요를 알아보겠다며 비트코인(BTC)을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임.

7일 업계에 따르면 약국체인 CVS를 운영하는 CVS헬스가 메타버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음. 상표 출원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CVS는 가상약국에서 처방 의약품과 기타 드러그스토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FT를 사용한 제품 및 판매 인증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아미타 아후자 웨이크섹 CFO는 외신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고객이 밀레니얼과 Z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이벤트는 의미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매거진 포춘은 “버거 전쟁이 비트코인 전쟁으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출처 : 섹섹버거에 CVS약국까지...일상이 되는 가상자산 (파이낸셜뉴스 정영일 3/7),
<https://www.fnnews.com/news/202203071542307965>

o 엑슨모빌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엑슨모빌은 미국 알래스카 유정에서 생산되는 잉여 천연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계약된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공급하는 시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잉여 천연가스를 운송 보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파이프라인과 저장고 등 상당한 규모의 설비가 필요함. 때문에 다수 에너지

기업들은 잉여 천연가스를 그냥 태우거나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소모하고 있음. 엑스모빌은 이러한 잉여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암호화폐 채굴 지원 사업을 시도했으며, 에너지 효율과 비용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엑스모빌, 잉여 천연가스로 암호화폐 캔다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3/25),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674>

0 클린스파크, 베어울프마이닝, 스트롱홀드디지털마이닝

클린스파크, 베어울프마이닝, 스트롱홀드디지털마이닝 등 가상자산 채굴업에 진출한 미 에너지 기업들이 최근 가상자산시장의 주요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에너지 업체가 소유하거나 설립한 채굴 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음. 별도의 외부 전력을 구매하지 않고 내부 전력만으로도 채굴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 출처 : '코인 채굴' 뛰어든 美 에너지기업...“마진율 90%” (서울경제 조윤진 3/21),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165Y8HP>

0 오픈시

더블록은 1일(현지시간) 오픈시가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문페이(Moonpay)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출시한다고 보도했음. 오픈시 이용자들은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으로 NFT를 직접 살 수 있게 되는 것임. NFT를 사기 위해 오픈시 외부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구매할 필요가 사라지는 셈임.

문페이 관계자는 더블록에 “초기 민팅을 비롯한 NFT 최초 판매와 2차 거래에서 모두 카드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 이 관계자는 일부 오픈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능을 시범 적용한 뒤, 전체 이용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 출처 : 가상자산 없어도 OK...“오픈시서 신용카드로 NFT 산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정인선 4/2),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02>

0 스베르뱅크

러시아의 가장 큰 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가 세계 금융 시장 차단에 직면한 뒤 암호화폐를 출시했음. 마켓 인사이더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몇 주 만에 디지털 화폐 스베르코인(sbercoin) 발행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음.

러시아는 달러 표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스베르코인이 루블을 다른 통화로 교환하고 서방 국가의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음.

* 출처 :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뱅크, 암호화폐 스베르코인 출시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4/3),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204030957359084c4c55f9b3d_1/article.html?md=20220403102831_S